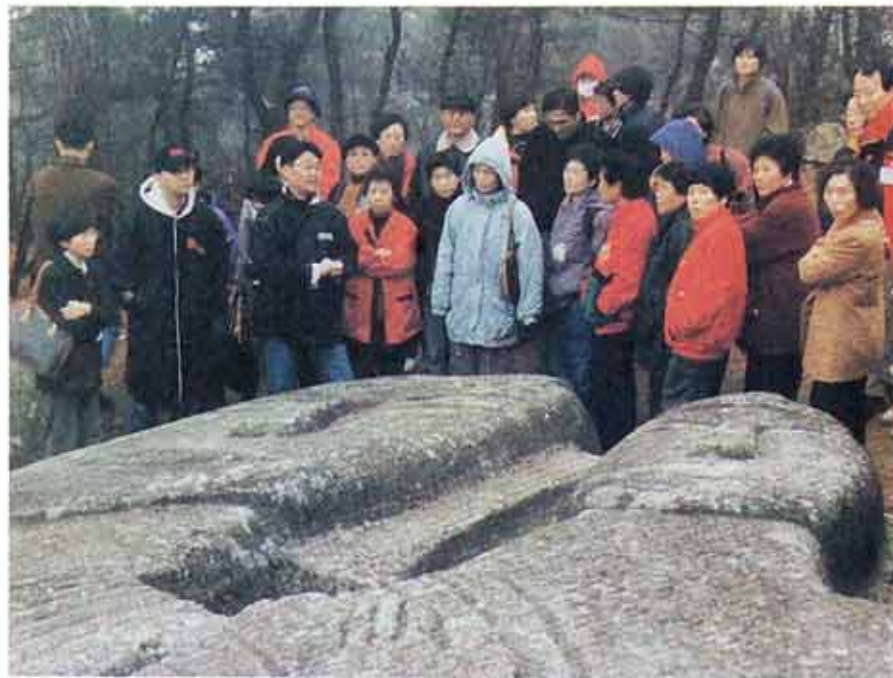


“악불 일어나면 미륵세상”



'97 문화유산의 해

불교문화 테마여행

11월 운주사 쌍봉사

“누운 부처님 언제 일어나시려나”

▶ 천불천탑굴의 바위 너 설에는 어김없이 짙박한 모습의 부처님들이 비스듬히 서 있다.

▷ 운주사의 상징으로 통하는 악불은 '부부불상'이란 오해도 받지만 일으켜 세우지 못한 미완의 불상인 채 미륵세상에 대한 열망을 담고 있다.

새벽안개가 걷히면서 운주사의 부처님들을 볼 수 있었다. 첫인상은 죄송스럽게도 '부처님들이 참 못생겼다'는 것이었다. 정교하게 조각되고 화려하게 개금된 불상들만 보아왔던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첫인상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못생긴 부처님들과 탑이 왜 그런 오지 산골에 돌비하게 모셔져 있는가 하는 이유였다.



▷ 운주사 초입에서부터 다양한 석탑들을 만날 수 있다.

운주사는 도선스님이 창건했다고 보는 견해가 가장 신뢰받고 있다. 우리나라를 한척의 배로 보고 그 중앙에 해당하는 이곳에 천불천탑을 조성해 안전한 항해를 기원했다는 것이다. 도선스님은 도술을 부려 천인들을 불러 하룻밤에 그 많은 불상과 탑을 조성했으나 마지막 불상을 세우려는 순간 새벽닭이 울어 불사를 다 이루지 못했다는 설이 전해 오고 있다.

그런가하면 세상으로부터 소외받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여 미륵의 율화세계를 열망하며 천불천탑을 조성했다는 설도 있다. 또 이곳이 밀교 사원이나 도교사원이었을 가능성도 조심스레 거론되고 있다. 운주사지의 북원에 '올마니반야홀'이라는 굴귀가 양각된 수막새가 발견됐고 불상들이 도포를 걸친 모습으로도 보인다. 나뭇대로의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설이 되기에는 약하다.

어쨌거나 운주사 천불천탑굴의 공통점은 열원이 있다는 것이다. 국운의 순탄한 항해나 율화세상의 구현을 바라는 극진한 열원이 있어 천불천탑은 오늘에도 순박한 사람들의 '말 한뼉박의 기도처'가 되고 있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운주사의 상징인 악불(臥佛)에 대한 오해가 많다는 것이다. 그런 오해는 이번 답사에 참여한 90여명도 갖고 있었다. 우선 두 부처님이 부부라는 견해가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 그저 나란히 누워있는 형상에서 금슬좋은

부부의 이미지를 떠올려서 그렇게 보는 견해가 가장 신뢰받고 있다. 우리나라를 한척의 배로 보고 그 중앙에 해당하는 이곳에 천불천탑을 조성해 안전한 항해를 기원했다는 것이다. 도선스님은 도술을 부려 천인들을 불러 하룻밤에 그 많은 불상과 탑을 조성했으나 마지막 불상을 세우려는 순간 새벽닭이 울어 불사를 다 이루지 못했다는 설이 전해 오고 있다.

이런 점에서 오늘의 우리들도 '운주사 부처님 일으켜 세우기 운

심비를 갖는다. 하늘의 복두칠성이 땅에 투영된 모습 그대로의 자리에 일반형의 돌 일곱개를 배치해 둔 것이 칠성바위다. 신기하게도 그 바위의 배치 각도가 하늘의 복두칠성의 자리와 일치한다고 한다. 일반형의 돌이 크기가 다른 것도 복두칠성의 밝기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운주사 칠성바위를 우리나라에서 천문학의 정보를 담은 가장 오래된 자료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단순한 몇개의 선만으로 장상을 표현하고 몸체가 갖가지 균형마저도 비스듬한 자세로 초탈해 버린 부처님들, 배고픈 사람에게는

천불천탑 82기만 남아 안타까워 나라를 한척의 배에 비유 순항 염원

동'을 벌여야 할 것이다.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모두 바닥을 드러내고 있으니 운주사 악불님을 일으켜 세우는 정성으로 우리들 삶의 중심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 무거운 돌들을 어떻게 옮겨 다 신비탈과 정상에 탑을 세우고 불상을 조성했을까. 위에서 칠성바위로 이르는 중허리에 널찍한 바위가 있고 거기에는 불상모양의 돌을 떨어진 흔적이 있다. 그곳이 채석장인 셈이다. 운주사 부처님들과 탑은 어디 먼곳에서 물을 날라다 조성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무박스런 현무암을 그대로 사용했던 것이다. 칠성바위는 불상과 탑 이상의

보리개떡이나 호떡을 연상시키는 일반돌을 쌓아 올린 탑(원형대종석탑·보물 제798호)과 무박한 석재 감실에 등을 맞대고 들어 앉아 천년 풍상을 견뎌서 바라보고 있는 부처님(석조불감 쌍배불좌상·보물제797호), 그리고 바위그늘에 웅크리고 있는 부처님들. 운주사 천불천탑 그 자체는 돈도 벌고 살고 오래 살고 싶기도 하고 시집 장기도 잘 가고 싶은 사람들이 지내온 열원으로 천년을 넘는 세월을 지탱해 온 곳이기도 하다.

조선 성종12년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에는 '운주사 좌우 산마루에 석불과 석탑이 각각 1천기씩 조성돼 있다'고 기록돼 있다. 그



▷ 쌍봉사 칠감선사부도탑

서 천불천탑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보다. 천불천탑, 그러나 지금은 70좌의 불상과 12기의 석탑만 남아 있다. 일제시대만 해도 지금의 3배였다고 한다. 우리 스스로 지켜내지 못한 안타까움은 이제부터라도 잘 지켜내는 원력으로 환치시켜야 하리라.

통일신라 때의 조형미의 극치를 자랑하는 시대에 조성된 칠감선사부도(국보 제57호)는 그야말로 자못 찬란한 듯 찬란한 듯 정교했다. 목조 건축 양식을 본뜬 지붕들은 처마 끝의 암막새와 수막새마저 세밀히 표현되어 있고 몸체에 새겨진 구름 사자 용을 표현한 조각들도 그야말로 '물을 떠 주무르듯' 한 신라인의 신기(神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글=임연태 사진=고영배 기지

항호군 <전남대박물관 학예연구사>

전문가 안내

화순 운주사의 불교유적은 '다탑봉(多塔峰)의 천불천탑(千佛千塔)'으로 알려져 있다. 좌우로 뻗어선 계곡 여기저기에 석불과 석탑들이 우뚝우뚝 서 있어 신비감마저 든다. 거기에는 장승같은 모습으로 부처를 조각하는 토속적인 조형성으로 많은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내게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운 불가사의한 유적이며 미완의 도량이다.

운주사의 불적 중 신앙의 중심은 악불, 불집모양의 석조불감, 칠성바위 등이다. 악불은 실제 악불이 아니다. 대개 악불은 부처님의 옆반상으로 측면으로 누운 모습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운주사의 경우는 반가부좌 상태에서 앉아 계신 모습의 본존불과 서 계신 모습의 협시불을 앞반에 조각하고 미처 일으켜 세우지 못한 미완성 부처님이다. 석조불감은 <동국여지승람> 등 각종 문헌에 자주 보이는데, 운주사 불적 중 가장 중심적인 신앙처로 주목받았던 증거이다. 칠성바위는 배설상태나 크기가 복두칠성의 범위라거나 밝기와 흡사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관측 수치가 실물로 제공되는 초국보급 유물이다.

운주사는 통일신라 말에 도선국사가 창건했다고 알려져 왔으나 전남대박물관이 1984년부터 1991년까지 실시한 발굴조사 결과 3차례에 걸쳐 중창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천불천탑의 제작시기는 불분명하다. 대개

칠성바위 세계최고 천문자료 쌍봉사 칠감선사부도탑 백미



▷ 운주사의 중심 신앙처인 석조불감쌍배불좌상과 원형대종석탑

불상과 석탑의 양식으로 보아 고려시대에 만들어졌다는 설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운주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쌍봉사는 칠감선사 도운(738~868)이 주석한 곳으로 유명하다. 이곳에는 선(禪)의 경지를 보여주려는 듯 각 면의 모서리에 안모금을 주어 날렵한 선맛을 낸 당대의 최고 걸작 칠감선사 부도와 그 비가 남아 있다.

쌍봉사에는 우리나라 목탑의 원형을 가늠할 수 있는 대응전이 있다. 1962년 해체수리를 한 적이 있고 84년 화재로 전소돼 1986년 새로 복원을 했지만 이전 모습과 달리 어색하다. 전에는 3층 지붕이 팔각이었으나 지금은 사모지붕으로 돼 있다. 탑이 아닌 대응전이라는 전각의 용도로 고쳐 쓰기 위해 일부러 개조했던 선인들의 지혜를 좇아 우리의 소견이 모아지는 듯하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화재의 와중에서도 석가삼존불(석가, 가섭, 아난)과 동국진체종인 대응전 현관 글씨를 모셔 내왔다는 하니 미운 맘이 좁아진다.

스님들께 PCS를 사드린다?

부처님 법음을 전하기 위해 항상 머무름이 없으신 스님! 상의드리고 싶은 마음 항상인데, 山中 유선 자주 끊기고, 출타중이시고, 스님들께 PCS를 사드리세요. 항상 우리들 옆에 계십니다.

『포교기금 부다피아』

“납부하신 통화요금중 5%는 통일포교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포교기금 부다피아란?

PCS 016 가입시, 「포교기금 부다피아」로 신청만 하시면 최고의 이동통신서비스를 받으시면서 불국토를 만드는데 힘을 보태실 수 있습니다. 고객예겐 조금의 부담도 없이, 납부하신 통화요금중 5%가 「포교기금 부다피아」로 적립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금은 전문단체를 통하여 통일 포교와 불우이웃 돕기로 쓰입니다.

●고객의 취향에 따른 선택요금제

| 상품명 | 기본료 (1개월) | 통화료(10초당) | | |
|------------------------------------|--------------|-----------|-----|-----|
| | | 평상 | 할인 | 심야 |
| 스파셜 (1시간대 0.900이 통화료의 할인 혜택) | 13,000원 | 38원 | 9원 | 9원 |
| 라이트 (1월 통화량이 평균 보다 적은 고객용) | 10,000원 | 35원 | 26원 | 18원 |

●월 통화량이 많은 고객용 선택 요금제

| 상품명 | 프리200 | 프리300 | 프리400 |
|----------|----------------------------|----------------------------|---------------------------|
| 무료통화시간 | 200분 | 300분 | 400분 |
| 기본료(1개월) | 200원 | 300원 | 400원 |
| 통화료 | 평상 18원 할인 14원 심야 10원 | 평상 17원 할인 13원 심야 10원 | 평상 15원 할인 12원 심야 9원 |

●PCS 016의 표준요금

| 구분 | 요금 | 비고 |
|----------|----------------------------|---|
| 기본료(1개월) | 16,500원 | |
| 통화료 | 평상 19원 할인 15원 심야 10원 | 평일 오전 8시~오후 9시 평일 오전 8시~오후 9시 오후 9시~오후 12시 공휴일 오전 6시~오후 12시 평일 오후 12시~다음날 오전 6시 |

- 플러스 인터넷(월6,000원) : PCS 016을 가입하시는 모든 고객은 월 6000원의 추가 할인액만 부담하시면 KORNET을 백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약은 신청하는 경우보다 50% 할인)
- 10월 이전 예약가입 고객의 심가입 전환과 예약가입 기간을 97년 12월까지 연장합니다.
- 12월 심가입 전환시 혜택 : 97년 12월 한달간 2000원, 98년 1월 한달간 2000원 무료제공 (97년 12월 28일까지, 1149년 동부 무료) 97년 12월 28일 12월 27일만 무가세로 전환
- 1월 가입고객을 위하여, 300, 400원 이내 모든 전화요금 고객은 97년 1월 1일 요금 면감 혜택을 제공합니다.
- 97년 12월 31일까지, 97년 12월 한달간 2000원, 98년 1월 한달간 2000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97년 12월 28일 12월 27일만 무가세로 전환)



한국통신프리텔

■주관 : 현대불교신문사(02-737-8881) ■ 후원 : 한국통신프리텔, 우리민족돕기불교운동본부, 소쩍새마을, (사)감로심장회

서울지사 02-732-1522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속초지사 0392-636-3923 청주지사 0415-63-3873 강릉지사 0391-43-5599 인천지사 032-461-3461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11-4580 전주지사 0591-747-0106 마산 창원지사 0551-84-0735 광주지국 0416-55-0020 고양지국 0344-912-2323